



국가R&D 특허기술동향조사 대폭 확대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추진계획 발표-

‘06년 국가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가’ 05년 4개 부처 538개에서 8개 부처 1,900여개로 대폭 확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한국전산원(‘02)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 특허정보 활용 시 연구개발 기간 21.2% 단축, 비용 11.2% 절감 가능

이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의무화 하고,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로 국가R&D 관계부처의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은 ‘04년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의결된 특허정보 활용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06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동 추진계획은 정부 각 R&D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05년 시범사업에서는 산자부·중기청 등 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을 지원하였고, 40명의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 ‘05년 상반기 특허동향조사 시범사업(산자부)에 참여한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2.7%(232명 중 215명)가 특허동향조사의 유용성을 인정하였고, 응답자의 90.5%(232명 중 210명)가 연구기획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기획이 가능했다고 답변함

금년에는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로 R&D 부처의 수요가 급증하여 산자부·과기부 등 8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자부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과기부 원자력중장기, 정통부 정보통신원천기술 및 건교부의 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등 R&D 관련부처의 200여개의 중장기대형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대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복지부 바이오 산업화기술, 농림부 농림기술 및 중기청 기술혁신 등 단기 연구개발사업의 1,700여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 유무 등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금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05년보다 대폭 늘어난 200여명의 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단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하여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 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06년도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

구분	주관부처	연구개발 사업명	사업 과제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조사	과학기술부	원자력중장기 계획사업	41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로드맵	15개
		성장동력산업기술개발사업	29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21개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9개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20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60개
	건설교통부	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16개
	합 계	211개	
과제선정시 선행기술조사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개
	복지부	바이오 산업화기술개발사업	100개
		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50개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	400개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1,000개
	합 계	1,750개	